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지역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봉우컬럼

## 다시 시작하는 인생

몇 해 전인가, 우리 교회 신문을 편집하는 전도사가 심장에 이상이 생겨 급히 중환자실에 입원한 적이 있다. 그 소식을 접한 나는 황급히 중환자실로 달려가 귀신을 쫓고 안수를 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곧 퇴원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나는 그 후로 그 전도사를 이름 대신 '하나님의 심장'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만일 그가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하게 태어났다는 의사의 말을 그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그 전도사는 평생 불안한 세월을 살겠지만, 하나님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내 말을 믿음으로 받고 믿는다면 그는 건강한 2막의 인생을 살 것이다.

염상섭 장로도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 입이 돌아가는 일을 당했다. 뇌졸중이다. 그런데 나는 그런 그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입을 돌려놓을 것이라고 말하며 기도원에서 간증을 하라고 했다. 입이 돌아간 충격도 가지지 않은 상태였으니 염장로에게 그 일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리라. 그러나 그는 내 말에 순종했고, 하나님은 당신 종이 뱀의 말을 신원하사 염장로의 입을 정상으로 돌려놓으셨다. 만일 염장로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주저앉았다면 그에게 지금처럼 멋진 인생 2막이 있었을까.

김정태 장로가 심혈관이 막혀 쓰러졌을 때 '이제 끝났다' 생각했더라면, 3부 성가대원인 서현아 집사가 젊은 나이에 암 선고를 받았을 때 '인생이 끝났다'라고 했더라면 그들의 인생도 거기서 종착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나에게 안수를 받고, 또 열심히 기도하여 완치되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을 때, 다니엘이 적국에 잡혀갔을 때, 히스기야가 곧 죽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여기서 내 인생 끝났다' 했더라면 성경 속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까?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고난과 환난을 겪게 된다. 그때 그 상황에 주저앉아버리면, 그래서 포기해버리면 거기가 삶의 무덤이 된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백배하여 일어나면 생각지 못한 반전의 2막이 전개된다. 이것이 우리 사전에 '포기'란 말을 써서는 안 되는 이유다. 포기는 스스로 자신을 죽이는 독약과 같다.

## 믿음과 지혜를 겸비해야 할 때다

지난 주일은 서울교회 전 성도들이 인터넷방송으로 예배를 드렸다. 이는 코로나 19사태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 목사님은 인천교회에서 참석한 성도들과 함께 영상예배를 드렸다.

영상예배에 앞서 목사님은 전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불이 났으면 먼저 불을 끄고 불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균 전염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 된 도리로 국가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분명한 거센 성령의 바람으로 이 어두움은 물러갈 것입니다.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라고 말씀하셨다.

이에 앞선 2월 28일, 총회장 목사님은

는데, 물론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그러나 그만한 믿음이 없는 자는 두려워할 수 없다. 그렇다고 그들을 나무라면 안 된다. 성경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롬 14:1)고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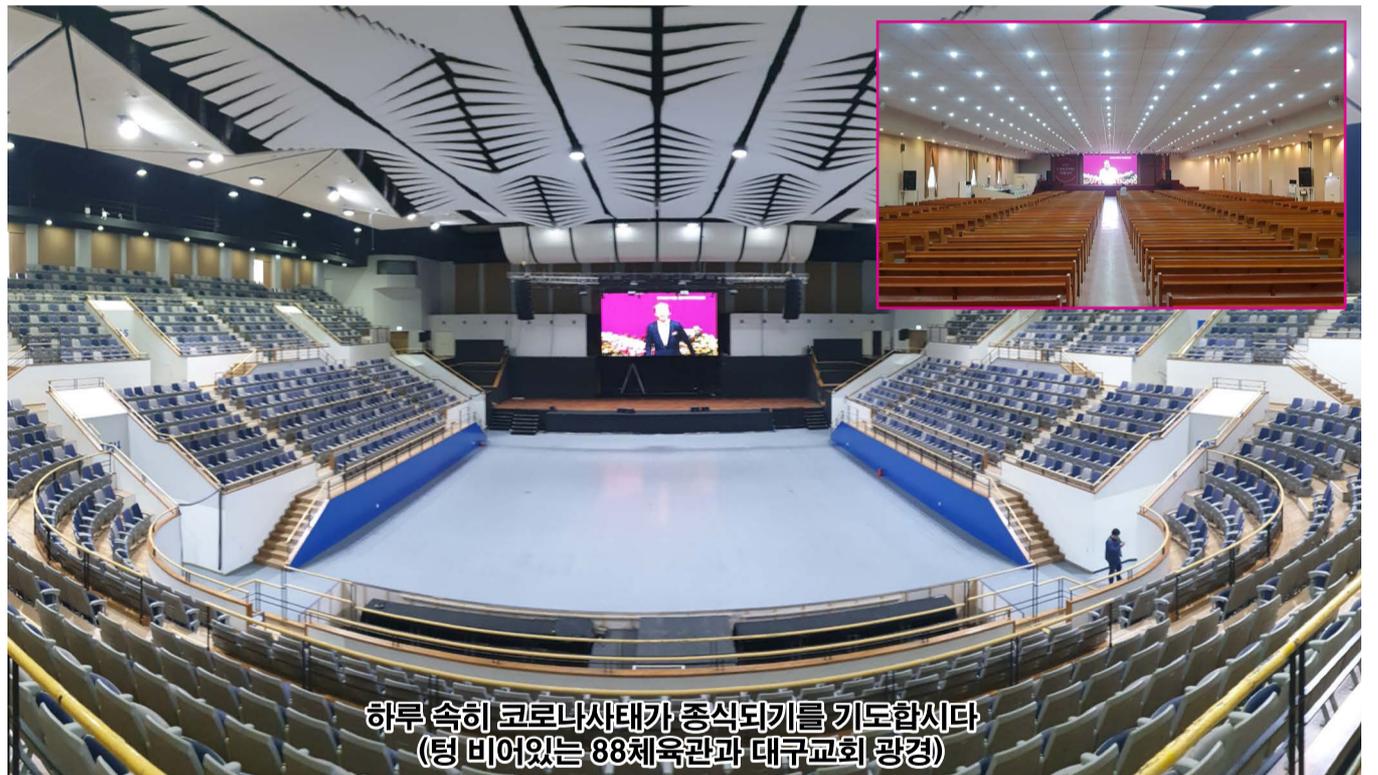
분명한 것은 믿음과 지혜는 다르다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비행기의 양 날개와 같고, 배의 양쪽 노와 같아 양쪽이 다 견비될 때 창공을 차고 날 수 있고, 앞으로 진행할 수 있듯 믿음과 지혜를 겸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될 수 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

건 '이렇게 결정되었으니 따르시오' 하지 말고, 현 시국과 우리의 입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어쩌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18:20)는 말씀은 이 시대에, 더 나아가 장래에 더욱 절실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한다.

어떤 사건을 재앙으로 몰 것이냐 에너지 삼을 것이냐? 나는 이 기회를 에너지 삼기 바란다. 우리만이라도 이 나라가 음란하고 패역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늘 말하지만, 국가가 건재해야 우리의 신앙도 지킬 수 있다. 국가가 온전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순탄치 않은 법,



하루 속히 코로나사태가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팅 비어있는 88체육관과 대구교회 광경)

서울과 인천 교역자들이 이태원 본부로 급히 소집하셨다. 국난에 가까운 코로나 19사태에 따른 우리 교회 대처방침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이다.

회의를 주관한 총회장 목사님은 "국가에서는 종교단체에게 감염을 우려해 예배를 당분간 자제해달라고 하고, 또 서울교회로 쓰고 있는 KBS88체육관 측에서도 간곡하고 정중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하며 협조를 부탁하는바 우리는 이를 간과할 수 없다. 하여 우리는 지난 수요일예배를 인터넷예배로 대체했고, 이번 주일예배도 서울교회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예정이다.

혹자는 '믿음이 없다. 귀신을 쫓으면 되는데 왜 뒤로 물러나느냐?'라고 반박하

느니라'(잠22:3). 이것이 지혜다. 소나기가 올 때는 잠시 처마 밑에서 쉬는 것이 좋다. 물론 우비나 우산을 쓰고 나가면 되나 빗방울이 튀기고 번거롭다. 잠시 쉬면 지나간다. 이 위기 상황은 소낙비처럼 금방 지나가게 된다. 잠시 쉬면서 그동안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한 것에 감사하고,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예배의 방법을 달리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인터넷예배도 예배다. 중요한 것은 지도자들, 곧 목사와 전도사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 성도들에게 잘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조

그래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10차에 걸쳐 기도성회를 가진 것이 아니겠나. 그러므로 기도와 더불어 국가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자."라고 말씀하셨다.

주일, 텅그러니 빈 서울교회와 대구교회 사진을 보면서 하루속히 이 사태가 종식되기를 기도했다. 그리고 누구보다 번민하셨을 목사님의 마음을 헤아려본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과 예방수칙을 지켜 내 스스로를 보호하는 일이다. 이 사태는 소낙비처럼 지나가게 될 것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

신묘수 전도사

**코로나19사태의 종식을 위해 다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살전5:5~27)



# 하나님을 아는 방법, 기도 외에는 없다

당신은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밥 먹을 때나 꾸벅 인사하듯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에게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 같네요.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이나 한 시대의 획을 그은 자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를 습관화했고, 기도하는 장소를 따로 가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고(행3:1), 다니엘이 그랬고(단6:10),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눅22:39). 에이브러햄 링컨도 백악관에 기도하는 장소를 만들고, 그 바쁜 와중에도 꼭 기도 시간을 지켰다고 합니다. 왜 그들은 기도에 전념했을까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며, 하나님과의 교류이며, 마귀를 이기는 최고의 무기임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위력을 볼까요? 출애굽기 32장에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사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지 않으셨으며, 한나는 하나님이 닫은 태의 문을 기도로 열어 평생의 소원인 자식을 얻었고(삼상1:27), 히스기야는 기도하여 앗수르 침공과 산헤립의 농락에서 살아 남았고(왕하19:19), 죽을병에서도 기도하여 고침을 받았습니다(왕하20:2). 또한 에스더가 풍전등화의 이스라엘 민족을 구할 수 있었고(에4:16), 다니엘이 굶어 허기진 사자의 굴속에서 털끝 하나 상치 않고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것도 그가 하루 세 번의 기도를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귀영화를 누린 것도 기도했기 때문이며(왕상3:4),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이 열려 비가 내린 것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고(왕상18:36~37),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도 기도했기 때문입니다(욘2:1).

##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답이 다 나왔습니다. 기도하면 다 된다는 것이 답입니다. 기도하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믿음의 선전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사하십니다.

경제적으로 힘들니까? 취직이 안 됩니까? 병이 들었습니까? 일이 자꾸 꼬입니까? 사업이 잘 안 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입니다. 기도하면 다 풀리고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앓은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정신병자를 고친 것은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동트기 전에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셨고(막1:35),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후에도 한적한 곳에 가서서 저녁에 기도하셨습니다(눅5:16).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찌 살겠습니까? 타종교는 원수가 없지만 우리에게만은 편지 걸려는 놈이 있는데요, 거미줄 쳐놓고 걸리기만을 바라는 원수가 있고,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는 자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데요. 그놈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기도만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적으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막9:29)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로 태어난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단적으로 말합니다(삼상12:23). 그것이 절대 과장된 말이 아님을 성경은 입증합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좇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라”(습1:6). 기도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구하지 아니함이다”(약4:2)라고 말씀합니다.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찾으면 하나님이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열리게 해주십니다(마7:7~8). 그런데 왜 열려하고 격정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빌4:6).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약5:13). 병든 자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찌니라”(약5:14). 능력이 부족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막9:29). 지혜가 부족합니까? 기도하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약1:5).

시험에 들었습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눅



총회장 이초석 목사

22:40). 기도는 마치 다이아몬드와 같습니다. 다이아몬드는 돌입니다. 그러나 정제하고 세공하면 값비싼 보석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그냥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엄청난 권세를 갖게 됩니다. 돌 같은 삶에서 다이아몬드 같은 귀한 삶으로의 변화는 기도에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가 멈춘 교회는 그냥 건물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입니다(막11:17).

그런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경우가 있지요? 그것은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경우입니다(약4:3). 또 하나, 정직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열납하지 않으신 겁니다. 성경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마5:8)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큰 자가 되지 말고 정직하고 깨끗한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큰 자로 만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 35년을 오직 기도로 왔습니

다.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도록, 성대가 과열되도록 부르짖었기에 오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기도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의 길을 여셨고, 제게 능력을 더하셨으며, 핍박과 모함 중에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믿는 자들의 최고의 무기요, 하늘과 땅의 문제를 여는 만능키입니다(마16:19). 만능키를 들고도 문을 못 연다면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까.

##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 같이 일정한지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호6:3). 하나님을 아는 법, 그것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대화를 해야 상대를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게 되고, 기도하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장래 일에 대해 알게 됩니다. 또 기도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속도 통달하게 하십니다(고전2:10).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가는 망하지 않습니다. 다들 자원의 고갈 때문에 망한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기도의 고갈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5:17)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벧전4:7)고 말씀했고, 이사야서에는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사58:9)고 하셨으며, 예레미야서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렘33:3)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면 약한 자가 강해지고, 미련한 자가 지혜를 얻고, 무능한 자가 능력 있는 자가 되며,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되고, 죄인이 의인이 되며, 지옥문이 닫히고 천국문이 열립니다.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으렵니까? 기도만이 인생의 답인데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요16:24) 할렐루야!

:: 객원컬럼 ::

:: 오늘의 메시지 ::

#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삶

# 이대회가 좋사옵나이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세상의 생명과 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됩니다. 발전소에서 발전해 보내야만 모든 가정에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이 근원되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내주지 아니하시면 사람들은 살아갈 수 없다. 복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만 사람들은 그 복을 받아 살 수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만 노력하면 잘 사는 줄 알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것이다.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사망은 끊임없이 쫓아다니며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내리신 것은 복을 주기 위함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는 그들에게는 바다 가운데 길이 열렸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바다 가운데 길이 열린 것을 보고 들어갔을 때, 그 바다는 그들의 무덤이 되고 말았다. 하나님이 열어놓은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다.

땅에 물을 부으면 눈도, 의지도, 마음도, 생각도, 아무것도 없는 순수한 액체가 굽이굽이 얇은 곳을 찾아 흘러간다. 물이 알아서 높은 곳을 피해 자기가 제한받거나 방해받지 않도록 낮은 곳으로 굽이굽이 흘러간다. 이와 같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통로가 있으며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신령한 자녀들이 걸어갈 수 있는, 영이 흘러갈 수 있는 낮은 곳, 안전한 곳으로 막힘없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해주시는 막히지 않는 문이 있건만 사람들은 이것을 무시하고 가로질러 가려고 하다가 벽에 부딪혀 깨져 버리고 마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땅을 정복하기 전, 가나안땅에는 수십 개의 성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성들을 정복할 때 눈에 보이는 순서대로 차례차례 점령한 것이 아니다. 그 여정을 보면 물이 굽이굽이 돌아 내려오는 것 같이 참으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기묘하게 전쟁을 하였다.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롬8:14),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이러하니라”(요3:8).

하나님의 자녀는 물과 같이 순수하고 순수하여 내 고집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택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성공하고 영원히 잘 살기를 바라신다.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하는 생각이라”(렘29:11). **신기류 목사**  
abba7777@naver.com

돌이켜보면 내 삶도 꽤 극적이었다. 직장 후배는 나를 가리켜 풍운아 같다고 했다. 그러나 정작 나는 풍운아가 싫다. 그저 이대회가 좋다. 급진적이며 보수적이다. 그래서 마음은 항상 뛰고 있는데 몸은 머물러 있을 때가 많다. 항간에서는 진보와 보수를 가리는데 그게 가려질 일인가? 어리석다. 나부터가 사안에 따라 진보와 보수를 넘나드니 말이다. 옳고 그름이 우선 돼야지 진보와 보수의 틀 안에서 사고하는 것은 위험하다.

일본은 그야말로 보수적이다. 이곳 지방만 해도 카드 쓰는 걸 보지 못했다. 탁구장을 찾아가 보니 우리나라 5, 60년대에 썼음직한 구닥다리 탁구대를 쓰고 있다. 우리나라 같으면 동호회 부인들은 탁구 전용운동복에 신발, 선수시합용 공에 비싼 탁구채를 구비해서 쓴다. 일본 주부들은 그저 편한 복장에 편한 신발, 아무 공이나 떨어뜨리는 공을

사용한다. 전형적으로 튀지 않고 남 배려하며 소극적이다. 순종적인 것이 놀랄 노자다. 크루즈에 신종 코로나 감염자가 몇 백 명이 발생하고, 배 안에 감금해놓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 ‘이대회가 좋사옵나이다’의 전형이다.

지바교회에 온 지 두 달째이다. 벌써 이대회가 좋은 것 같다. ‘오, 주여. 이곳이 편안한 모양입니다.’ 편하길 거부해야 한다고 목사님께서 당부하신 말씀 때문에 편치 못하다. ‘오, 주님. 또 병이 도질 모양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를 채찍질하셨던 주님. 이제 다시 저를 또 이끌어주셔야겠습니다. 틈만 나면 여기가 좋아 주저앉는 저를 또 일으켜 끌어주십시오.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그렇게 만드셨으니 책임져주셔야지요.’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새롭게 인도하여주셨으니 또 어떤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실까 기대합니다. **이광주 목사**



:: 신앙논객 ::

:: 생명의 말씀 ::

# 승리를 위하여

# 고슴도치의 딜레마

성경은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뉘엿뉘엿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딤후3:1~5).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악한 마귀를 능히 대적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엢6:10~17).

악한 마귀는 속이는 자요, 분리시키는 자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여 인간을 죄와 고통 가운데 빠뜨린 주범이다. 그 마귀는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속이고 분쟁, 분열케 하여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고, 나아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까지 끊어놓기 위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고 생명 주셨음을, 또한 죽기까지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하늘과 땅을 이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사랑을.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려 친히 화목제물 되셔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모든 어둠과 죄악, 고통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이 된다. 이 세대는 개인의 감정에 따라 살아야 만족을 얻을 것이라 부추기지만,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야 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받은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은혜를 입을 수 있고 또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폭풍우가 이는 듯한 환경과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나의 목소리는 낮추고 ‘사랑하라, 용서하라, 화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때, 우리가 가는 좁은 길이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고, 이 세상과 모든 어둠의 세력을 강력하게 파쇄(破碎)하여 이기는 승리의 길, 생명의 길이 될 것이다. **이국진 사모**

고슴도치는 몸에 가시를 갖고 있다. 물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무기인 셈이다. 적이 공격하면 자신의 몸을 받송이처럼 말아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한다. 그런데 추운 겨울에는 그 가시 때문에 딜레마에 빠진다. 가시에 찢리기 때문에 서로 몸을 밀착시킬 수가 없다. 떨어져 있자니 춥고, 체온을 따뜻하게 하자니 상대방의 몸에 있는 가시에 찢린다. 이것을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의 딜레마’라고 말한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다. 한자로 사람 인(人)자는 두 사람이 서로 기대고 있는 모습이다.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서로 기대며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작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세 종류로 분류한다고 한다. 첫째는 ‘뱀’과 같은 사람이다. 질병처럼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을 만나면 피해를 입기 때문에 가만하면 멀리 피해야 하는 존재이다. 둘째는 ‘약’과 같은 사람이다. 약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아무 때나 함부로 먹지는 않는다. 평소에 아무런 관련이 없

다가 어떤 일이 생기면 필요한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밥’과 같은 사람이다. 밥은 매일 매일 먹는다. 밥을 먹지 않고는 기운을 차릴 수 없다.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다. 만날 때마다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자주 만나면 좋다.

고든 맥도날드는 ‘같이 있어서 기쁨을 주는 사람들’과 ‘떠나는 것이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한다. 함께 있으면 힘이 되고, 마음이 통하고,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런가 하면 가시를 갖고 있어서 함께 있으면 자꾸 찢리게 되는 사람도 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으니(고후 5:17) 남은 인생은 밥과 같은 사람을 뛰어 넘어 산소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다짐해본다. 오늘도 스치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산소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고. 산소 같은 존재. 한 시도 없으면 안 되는 존재. 생동감을 더해줄 수 있는 존재가 되리라고... **임택함 목사**

# 하기 싫은 일

“괜찮아, 무리하지마.” 요사이 제 자신에게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치열하게 경쟁하고 스스로를 다그치며 광고회사에서 10년 넘게 일한 자신이 대견하고 측은해서 더 이상은 채근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퇴근하고 나면 마치 막내 손주의 투정과 어리광을 받아주는 할머니처럼 스스로에게 한없이 관대해져서 좀 더 자자, 좀 더 쫄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늙자 하는 마음을 말리지 않았습니

다. 저녁을 먹은 후엔 언제나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곧장 눕고 싶은 마음과 설거지를 끝내고 소화시킬 겸 산책하고 싶은 마음. 대부분은 눕는 쪽이 이깁니다. 영어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과 텔레비전을 켜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텔레비전을 켜는 쪽이 이기고요. 평일에는 ‘이번 주말에는 쓰고 싶은 글을 써야지’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주말이 되면 편하게 빈둥거리는 쪽을 선택합니다. 스스로에게 “괜찮아, 지금껏 열심히 했잖아. 지금은 이래도 돼.”라고 다독이며 말이지요. 그런데 누워있으면서도 건강해졌으면 좋겠고, 텔레비전 보면서도 영어는 잘했으면 좋겠고, 빈둥거리면서도 좋은 글이 잘 써지길 바라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영어교육 유튜브 <라이브 아카데미> 신용하 강사의 강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청중에게 질문을 하나 합니다. “나보다 성공적인 사람,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열심히 하는 사람? 능력이 뛰어난 사람? 즐겁게 하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 그의 대답을 듣고서 저는 순식간에 부끄러워졌습니다. “나보다 성공적인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은, 하기 싫은 일을 나보다 많이 한 사람이다.” 그는 덧붙여 말합니다. 쉽고 즐거운 시간만 보내면서 뭔가 의미 있는 결과를 바라는 것은 어린이의 마음이라고요. 성숙한 사람이라면 싫은 일,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해낼 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요.

영어든 일이든 다이어트든 무언가를 잘 해내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게는 뭔가 특별한 비결이나 재능이 있을 거라고 믿고 싶어집니다. 그들에겐 특별한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쉽고 빠르게 잘 해낼 수 있는 거라고요. 특별하지 않은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봤자 그들처럼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의 이면에는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찾고 있던 것 아닐까요?

영어학원에서 강사를 하면서 동시에 유튜브 방송을 하려고 준비하던 신용하 강사는 그 당시 하루에 두세 시간 밖에 못 잤다고 합니다. 그때 주변에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쉬엄쉬엄해, 괜찮아 잘하고 있어, 무리하지 마’였다고. 아껴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라 감사하지만, 변화와 성장은 언제나 우리의 한계점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것도 한계점에 순간 도달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한계점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요. 더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지금의 불행을 합리화하는 것이 더 편합니다. 그렇다고 편한 쪽을 선택하지 말자고 그는 말합니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무리하는 것이 맞다고 말이지요.

하기 싫은 일을 해냈을 때, 좀 더 발전된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의 강연을 본 후, 요새는 하기 싫은 일을, 귀찮은 일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녁을 먹고 곧장 설거지를 끝내고, 아픈 어깨를 내버려 두지 않고 틈나는 대로 스트레칭을 합니다. 억지로 영어책을 펼치고요. 이번 주말엔 누워있지 말고 글을 써야겠습니다. 당신이 하기 싫은 일은 무엇인가요?

신은혜

# 인정의 힘

얼마 전 회사 거래처와 식사를 할 때였다. 큰 프로젝트 마무리 후 회식 자리였는데, 그 프로젝트는 다른 때보다 훨씬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들어갔다. 사실 나로서는 어느 정도 할 만큼만 해도 되었지만, 목사님께 배운 대로 이왕 ‘오리 갈 것 심리 가는 마음’으로 더욱 서비스 정신을 발휘했다.

식사 도중 거래처 담당자 중 한 명이 감사 인사를 건네며, 본인이 인사권이 있다면 날 스카우트하고 싶다는 말을 했다. 이어서 다른 담당자들도 공감의 말을 덧붙였다. 그 순간 그간의 모든 피로가 모두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그 어떤 감사 인사보다 고마웠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를 인정해주는 말의 힘이 참 크다는 것을. 예수님께 인정받은 자들이 왜 죽기까지 충성하는지 알 수 있었다. 사랑하는 주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기도가 응답되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그 순간에 그간의 모든 수고가 보상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믿는 자들의 기쁨은 기도의 응답 자체에도 있지만, 응답이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받았음을 나타내기에 더욱 기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면 우리에게 기쁨과 새 힘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온다. 반면, 마땅히 인정하지 않는 행위, 즉 무시하는 화를 가져온다. 특히 가족 간에,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당신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음을 상기하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자.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리라(잠3:6). 그리고 은연 중이라도 상대를 무시하지 말고 인정하는 말을 하자. 그것이 그들에게 큰 용기와 힘이 될 것이다.

박찬영 집사

post.naver.com/imsfriendly

# 기적을 부르는 믿음의 선포

:: 치우치지 않는 저울 ::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 재료를 트렁크에 싣고 차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어느새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요란한 소리에 눈을 떠보니,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아무도 없고 차 안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차창 밖으로 사이렌이 울리고, 사람들이 급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큰 사고가 난 것 같았습니다. 그 사고 차량은 아버지가 운전하던 차였고, 지나가던 분들이 어린 저와 동생을 먼저 구조해서 다른 차로 옮겨놓은 모양입니다. 곧 119구조대원이 저를 구급차로 데려갔습니다. 아버지, 저와 동생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머리에 충격을 받았고, 팔이 부러져서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습니다.

이틀 후, 의식이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병원의 진료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롬4:17)고 날마다 외치고 다녔는데, 병원 치료를 받아 나오면 사람들이 조롱하지 않겠느냐며,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날은 공휴일이어서 퇴원 처리가 되지 않아, 병상에 누워 기도했습니다. 그때부터 주변에 오디오가 있는 것도 아닌데, 설교 테이프를 듣는 것처럼, 어머니 귀에는 이 초석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들렸습니다. 환난을 통하여 축복받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간증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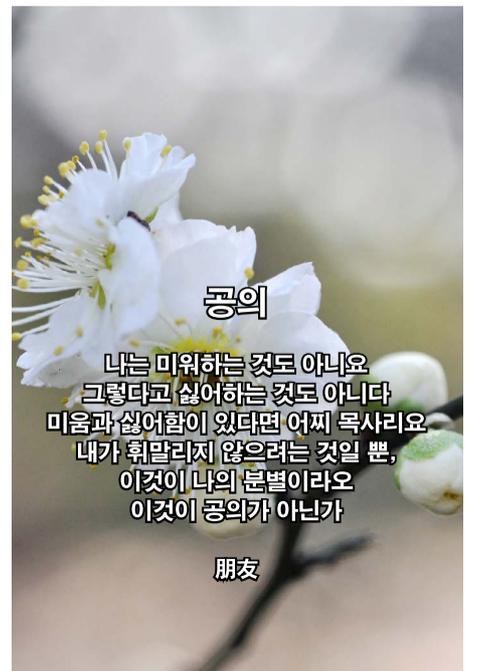
일째 되던 날, ‘환난 날에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의지하여 곱스를 한 상태로 퇴원했습니다. 의사와 가족이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 교단의 지교회가 없던 지역이라 주일예배를 드리기 위해 출석하던 교회에서도 그건 잘못된 믿음이라며 이상한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때문에 이 초석 목사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몸을 간신히 이끌고, 마침 동계집회가 시작되는 장성 기도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바로 기도원 기도의 동산에 올라 ‘이 초석 목사님께서 단에 서시는 첫 시간에 부러진 뼈가 붙고 보이지 않는 사고의 통증까지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앞자리에 앉아 기도하며 목사님을 기다렸습니다. 이 초석 목사님께서서는 단에 오르자마자 바로 설교하셨는데, 놀랍게도 병상에서 어머니 귀에 들렸던 목사님의 설교와 일치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때 확신이 들었을까요? 목사님은 설교를 마치신 후, 통성기도를 시키셨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곱스를 스스로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단위로 힘차게 던졌습니다. 목사님은 어머니를 단 위로 불러 세워서, 풀어 던진 곱스를 손에 들고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말하고 기도한 대로,

이 초석 목사님이 단에 서신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 장면은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고, 하나님을 부인하던 가족들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던 그 교회 사람들이 더 이상 어머니에게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삼상17:47). 소년 다윗은 조롱하는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그의 선포는 아군이 들었고, 적군이 들었으며,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의 선포로 이 전쟁의 책임 관계는 하나님께로 이전되었으니, 다윗과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의 전투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의 선포대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가짜 목사요!” 총회장 목사님께서서는 해외집회 때마다 단에서 믿음으로 선포하십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 기적의 현장을 수없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심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말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위기를 만나거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정명관 성도

v-777@naver.com



朋友